

37°30'24.4"N 127°02'05.3"E
37°42'47.5"N 126°44'24.9"E
36°58'11.8"N 127°52'16.4"E

2016 - 2021

ARCHITECTURE PORTFOLIO

JANG HEE JO

ARCHIEVE:
JANG HEEJO

2016-2021

199710.30

MOBILE : +82 (0)10-6329-4013

E-MAIL : gmlwh0714@gmail.com

1997. 10	서울 출생
2016. 02	파주 운정고등학교 졸업
2016. 03	한국교통대학교 건설교통대학 건축학과 입학
2022. 02	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졸업(예정)

EXPERIENCE

2016. 03	해비타트 충주 성심맹아원 봉사활동
2016. 08	2016 한국 철도건축 문화상 staff
2017. 08	2017 한국 철도건축 문화상 staff
2018. 03 ~ 2019. 03	studio L.A.P 실장
2018. 12	Chian Mai_Design labs 국제워크샵
2019. 11	충주 녹색 어린이 건축학교 투터
2020. 01 ~ 2020. 06	1990 도시건축 건축사무소 인턴

AWARDS

2016. 06	한국교통대학교 교내 통합크리티벌 발표 우수상
2017	충북건축대전 특선
2018	제22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참가
2019	Shelter for Soul International Design & Installation Competition 참가
2019	2019 한국 철도건축 문화상 가작
2019	2019 차세대문화공간 광모전 장려상
2021	기장카페 건축설계 디자인 공모전 참가

SKILLS

AUTO CAD
SKETCHUP
PHOTOSHOP
ILLUSTRATOR
INDESIGN
REVIT
V - RAY

LOG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고민은 시작됩니다. 오늘 뭐 먹지? 뭐 입지? 같은 시답잖은 고민부터 하루의 계획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머리 속을 채우는 수많은 고민과 생각들 중 오늘 어디에서 살지? 같은 고민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선 의식주라는 세 가지 필요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웃과 음식에 비해 건축은 접근성이 낮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하나님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두 가지 요소보다 수십, 또는 수백 배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아주 먼 옛날 동굴에서 나온 호모 사피엔스들은 너나할 것 없이 도란도란 모여 음악을 치고 살았는데, 건축은 왜 누군가의 전유물이 되었을까? 라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미디어에서 건축, 또는 건축가들은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의 건축가들은 잘생긴 얼굴을 하고 멋진 짓장을 입은 뒤 모던한 인테리어의 사무실에서 블랙 커피를 마시는 모습으로, 건축가들이 나오는 다큐, 또는 인터뷰에서 그들은 항상 깊은 철학에 젖어 있고, 건축을 통하여 사회에 저항하며, 사람들을 계몽하겠다는 의지가 한가득 느껴지는 모습으로. 어쩌면 이런 흐름이 일반 대중들에게 건축에 대한 문턱을 한 단계 높였을지도 모릅니다. 건축학도에 대한 흐름이 있는 저의 아버지는 새로운 일주자들을 위한 공동구매 장소에 저와 함께 하며 방송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송망의 비용차차 배운 적이 있는데! 반백 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아버지가 자보다 방송망을 수십 배는 더 보았을 것이고, 약했을 것이며 분명한데, 건축가들은 직업에 입각해온 환경은 그대로 건축에까지 엮겨가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는 지은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 살고 싶다 생각하지만 본인이나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 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러움 또는 시기심에 기독 한 채로 묵장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슬프기도 그 아파트 마저는 본인의 소유가 아닌 사람에 더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들이 잘못했기에 생긴 일이 아님은 분명한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저 지금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휴학을 하고, 서울에서 삼간 아는 분의 일을 도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밤 늦게 일이 끝난 탓에 직원분의 차를 얻어 타고 집에 가게 되었는데 한강을 건너며 한강의 야경을 좋아한다 말하자 직원 분은 저 많은 불빛 중에 내 집은 없겠지……라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한강의 야경이 조금 서글퍼졌을지도 모릅니다. 지나치게 올라가는 부동산의 가격, 서울의 집값. 사람들은 서울로 몰려들고, 서울의 집값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높기만 한 고층 아파트들은 계속 생겨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집이 없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몰려간는 고층 건물들은 누구를 위해 지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전에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의 잘못인 건지, 서울로 몰려온 수밖에 없는 현실의 잘못인지. 더 나아가 건축이 누군가의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인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것인지에 대한 의문. 달이 먼저인지 달같이 먼저인지에 대한 고찰만을 난제인 의문들입니다. 이러한 고민들과 함께 시간이 흐르는 지금도 달과 같은 건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건축을 배우게 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무력할지 모르지만 무의미하지 않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슬픈 현실 속에서 저 역시 서울로 취직하기 위해 애를 쓰며, 학교 앞 원룸촌, 10평도 되지 않는 방 안에서 생활합니다. 한쪽에만 둘러 있는 창은 원활한 환기도 불가능하고, 화장실과 현관, 부엌이 동시에 존재하는 뒷에 늘 습기로 가득한 방. 본마니 아니라 부엌이 아닌 방 한구석에 위치한 냉장고는 밤마다 소음을 내며 돌아가는 뒷에 매일 밤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앞에는 매년 개강과 함께 이와 유사한 신축 빌라가 지어집니다. 수요가 있기에 집을 짓고 저 역시 수요자들 중 하나입니다. 건축을 공부하며 일률적인 건축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저 역시 그러한 집에 살고 있으니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서울 지향적인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듯 말하면서 서울로 향하고 싶어하는 저의 잘못일까요? 어쩌면 그렇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부터 화두로 떠오르는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이야기.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가짐으로 인해 늘어나는 쓰레기들처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옳지 않은 건축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이 원룸촌 안에 새로운 유형의 건물이 생긴다는 가정을 해봅니다. 주방과 침실, 현관이 모두 구분되어 있고, 자연스러운 흐기가 가능하며, 두 달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들인 그런 집. 분명 가격은 다른 집보다 비쌀 것이고, 그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도 다른 건물보다 현저히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공간 속에 삶을 담아본 사람은 배란다 하나 제대로 없어 뻘孱을 하면 온 방 안에 습기가 차는 사람보다 더욱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꿈꿉니다. 세면대가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은 세면대가 있는 집을 꿈 꾸 것이고, 배란다가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은 배란다가 있는 집에 사는 것을 꿈 꾸는 것처럼. 이 만약이라는 가정이, 보다 나은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밀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약이라는 가정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것이 건축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이 가진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이는 아무 사람들이 아무리 민족이나 무자비하게 짓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클라이언트들이 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한 걸음이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웃을 만드는 방법은 모르지만 어떤 웃을 입어야 저에게 어울리고, 상황에 맞는 짐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은 저처럼 건축 역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서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깊이 싸고, 사람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방식인지가 아니라 어떤 집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나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도록. 건축에 대한 생각이 몇 명의 건축가들을 위한 천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달창 같은 집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느껴야 합니다. 한 칸의 닭장조차 제대로 소유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편함을 도로해야 합니다. 도로할 곳이 생겨야 합니다.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은 채 세워지는 빌라에 대한 불편함. 공식처럼 일률적으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불편함. 그자 쓴 가격이면 팔리는 건물에 대한 불편함. 결국 세상을 바꾸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불편함과 이를 감지하는 예민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불평이 너무 많다고 또는 지난치게 예민하다며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순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제자리에 멈춰 서고 말 것입니다. 그저 그런 현실에 안주하는 것만을 죄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치게 가혹하게 구는 세상을 향한 무력감을 원동력으로 치환하며 사는 것이 조금 짚들지 않습니까. 왜?라는 질문에 매몰되어 때로는 걸음이 조금 느려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무언가를 찾아내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도전을 그리고 모색하는지 경쟁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끊임없는 생각과 고찰로 한 걸음 내딛기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내는 건축가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CONTENTS

해방촌 다시 읽고, 신흥시장 다시 쓰기
5th GRADE 1st SEMESTER

茶讀: 마시고, 읽다.
4th GRADE 2nd SEMESTER

URBAN VOID
4th GRADE 1st SEMESTER

團欒
기창카페 건축설계 디자인 광모전

杏花 RENAISSANCE
2019 차세대문화공간 광모전

해방촌 다시 읽고, 신흥시장 다시 쓰기

5th GRADE 1st SEMESTER
PERSONAL WORK

이범선의 오발탄(1959)에서 그려진 해방촌은 사람들의 철규와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 조물주의 오발탄인 것만 같은 사람들, 끊임없이 기차라고 외치지만 궤도를 벗어난 오발탄들, 철호를 살은 채 목적지도 없이 도로를 배회하는 택시. 그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방 직후 북에서 월남한 실형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이루어진 촌락미군 폐자재와 버려진 판자로 기워진 집들, 흙먼지가 날리던 굽이진 골목길, 기파른 경사. 남겨진 것이라곤 여전히 가파른 경사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골목길 정도일까. 그럼에도 이곳이 예전에 해방촌인 이유는 주민들의 생존과 투쟁을 고스란히 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고향을 잃은 실형민 대신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상경한 지방민 대신 저렴한 집세를 찾는 예술가들이 자리한 동네. 일상을 빚어낸 이름에게 일상은 존재한다. 해방촌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다.

과거의 일상을 위해 존재했던 신흥시장은 비일상들로 인해 비워진다. 여전히 낡고 어울어진 시장. 찾아올수록 누군가는 떠나는 아이러니. 70년의 시간이 흐르며 생활물을 팔던 이들은 떠났고, 끊임없이 국수를 뿐던 기계는 멈춰지 오래이다. 더이상 일상도 비일상도 되지 못하는 공간. 마구잡이로 놓린 침문은 더이상 비밀을 막아주지 못하고, 난잡하게 늘어진 전선들이 위태롭다. 일상이 되지 못한 공간은 결국 잊혀지기 마련. 언덕배기 위에 자리한 작은 시장은 색이 바래진 적벽돌처럼 정체성이 흐려진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방촌의 중심에서 신흥시장은 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못한 채 그저 머물고 있다. 변함없이 제자리에 위치함으로서 의미를 다하는 무언가도 있기 마련이지만, 겸대기만 남은 건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변화하는 세대에 빨 맞추어 정체성을 재학립하고, 고유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곳은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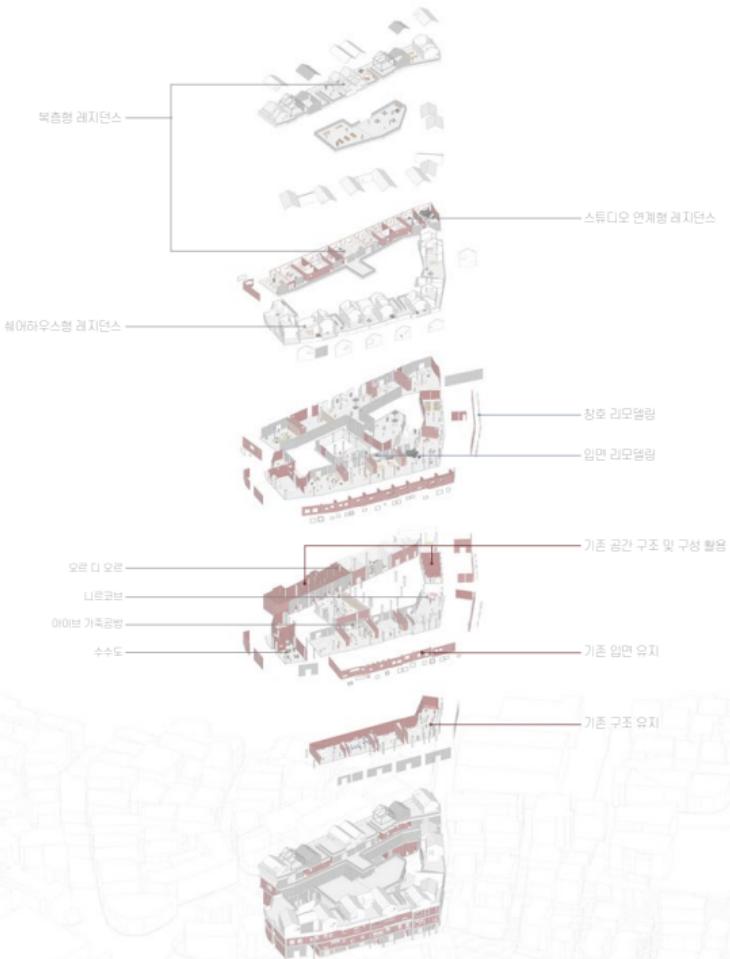
비단을 도려내고 모질사시하게 주워 봄이 한식장을이었다. 레이선 곡을 풀어 닦은 저마다 어깨를 소질 만자 비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데나 마구 바란 뜨울이, 미끄러운 길에는 구금단 폐가 균데근데 한데 더명이 운정 꽂혔다.

- 오별단, 이범선, 1969

콘크리트 위로 끊은 벽들을 기워붙인 건물 안에는 요꼬를 만드는 수공업자들로 가득했다. 작은 땅 안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높이진 건물들 사이의 작은 길목길. 그 위로 슬레이드를 덧대어 만들어진 시장이 바로 신흥시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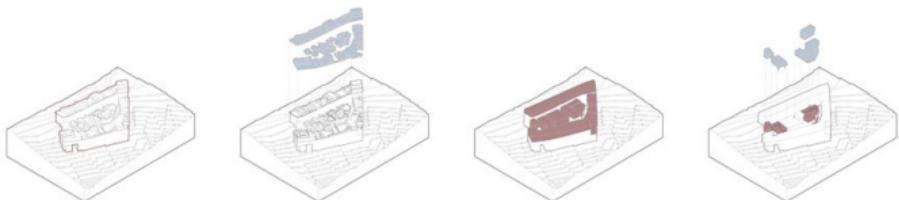


수공업자들이 사라진 시장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침이 빛겨진 콘크리트 벽, 색이 바랜 벽돌을 감싼 유리, 늘어진 전선줄, 누군가는 이를 낭만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인상을 피우될 것이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되 지금의 감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해방촌이 예전히 구불거리는 골목길로 이루어져있는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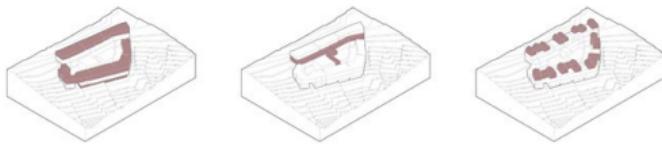


기존 시장

기설 건축물 흥기

기용 가능한 공간

기존 건물 철거



보도 및 수직 짐목길 형성

데스 연결

수직 흔적

해방촌에 터를 잡은 예술가들에게 시장 한 건의 자리를 내어준다.
붉은 적벽들이 강변 외관과는 다른, 두툼하게 서로를 비추는 시장 안쪽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한다.
물건을 통장하는 사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
그들이 전부 모였을 때 우리의 일상이 한창된다.



시장이 형성되면서 설치했던 건물 사이의 박공 지붕은 시장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는 이유로 얼마 전 철거되었다.
작별을 건물 위로 엎어진 박공의 흔적들은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고 주변 건물들의 스케일에 대응한다.





지상 1층 도면

- | | |
|-----------|-----------------|
| 1. 레스토랑 | 6. 민물매어선 |
| 2. 가변형 공방 | 7. 기획 전시실 |
| 3. 카페 | 8. 청년창업 지원 원대상점 |
| 4. 창고 | 9. 회장실 |
| 5. 주방 | 10. 비데나사 |
| | 11. 디비체움 |

다른 레밸을 지난 시장의 입구들은 수직적으로 프로그램 배치에 다양화를 줄 수 있다.
각 층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연결한다.



지상 2층 도면

마천지 해방촌에 남아있는 작은 골목길과 사이의 계단을 악화했던 시장의 맴연 사이로 점목을 만들고, 소식으로 연결한다.
계단으로 인해 만들어진 두 개의 벽은 자연스레 공간을 분리하게 된다.

1. 현년 창간 지면 사무실
2. 운동 스포츠 공간
3. 미터스토 쇼케이스
4. 디백체 미디어실
5. 현년 창간 상당 및 회의실
6. 오픈 스포츠디로
7. 마리 소웨디로
8. 전시실
9. 마을 도서관
10. 디백체 교육실
11. 카페 & 레스토랑
12. 공동주방 &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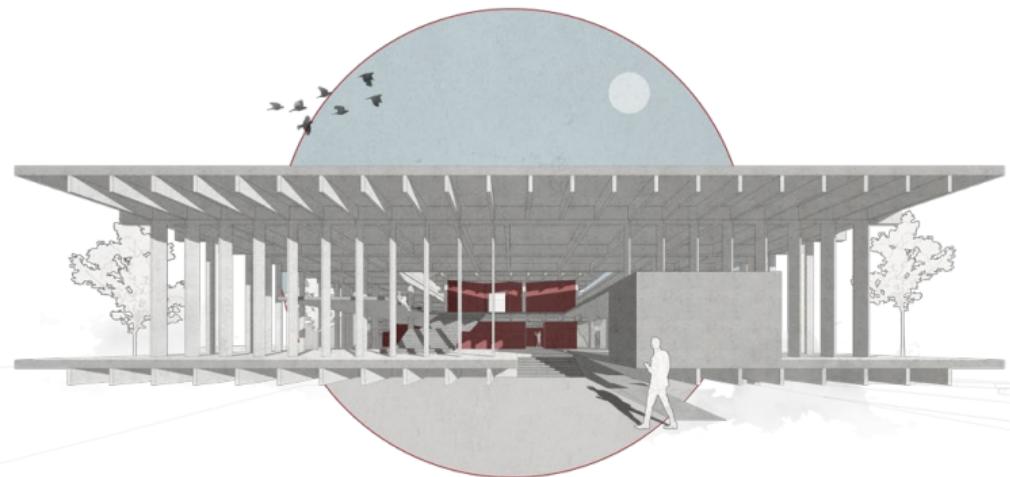
茶讀; 마시고, 읽다.

4th GRADE 2nd SEMESTER
PERSONAL WORK

1400년 전 조국에서 쫓겨난 우륵이 풍경을 감상하며 가야금을 타던 곳. 울창한 송림과 기암절벽이 남한강과 마주하며 차이나는 풍광. 과거의 탄금대는 뛰어난 명승지였으며, 치열한 격전지이기도 하였다. 광활하게 펼쳐진 장관을 바라보며 우륵이 타던 가야금의 음율을 떠올리고, 열두대 위에 서서 이곳을 오르내리던 신립 장군을 기린다. 무수한 이야기를 간직한 탄금대는 여전히 자리에 남아 역사를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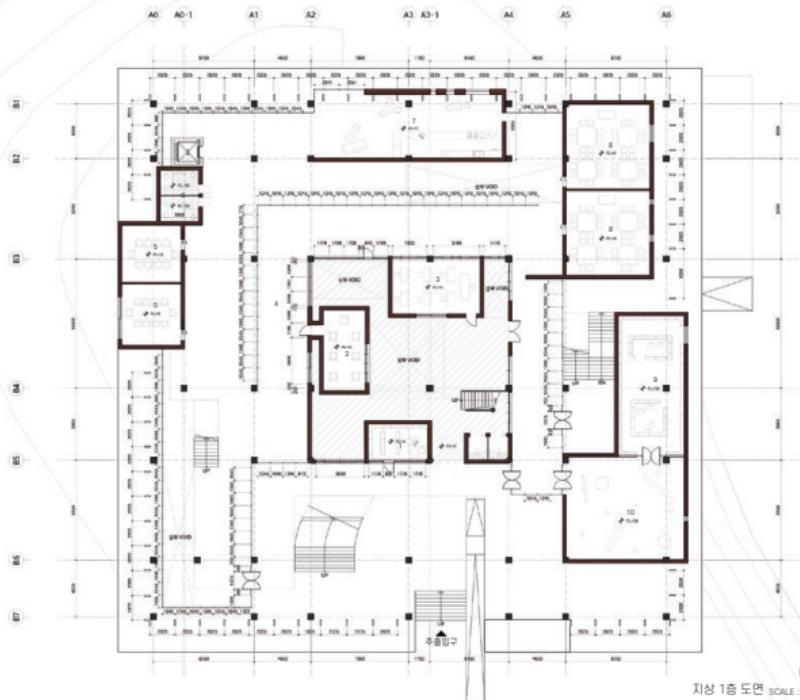
탄금대의 산길을 따라 굽어진 오르막길의 끝에 다다르면 보이는 이름 모를 건축가가 지어둔 작은 건물. 1965년,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함께 시작되었던 춤주 문화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찾는 발걸음이 점점 흐려져갔다. 그럼에도 여전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문화원은 여전히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곡선의 지붕과 둘둘된 보, 자유롭게 구성된 평면. 현대의 재료를 통하여 전통건축의 요소들을 복기한다. 그 안의 사람들은 중원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되새긴다. 산 청상에 도달하면 숨을 고르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들은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의 근대건축물들은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한다. 도시의 흉물, 또는 재개발 대상.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가 전부가 아님은 분명한데도 단편적인 시선들은 그 안까지 달지 못한다. 우리는 그저 건축물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근대건축물은 단纯洁한 과거의 막제된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삶까지 이어져 있는 매개체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들의 숨겨진 역할을 찾아내고 기능할 수 있도록 듣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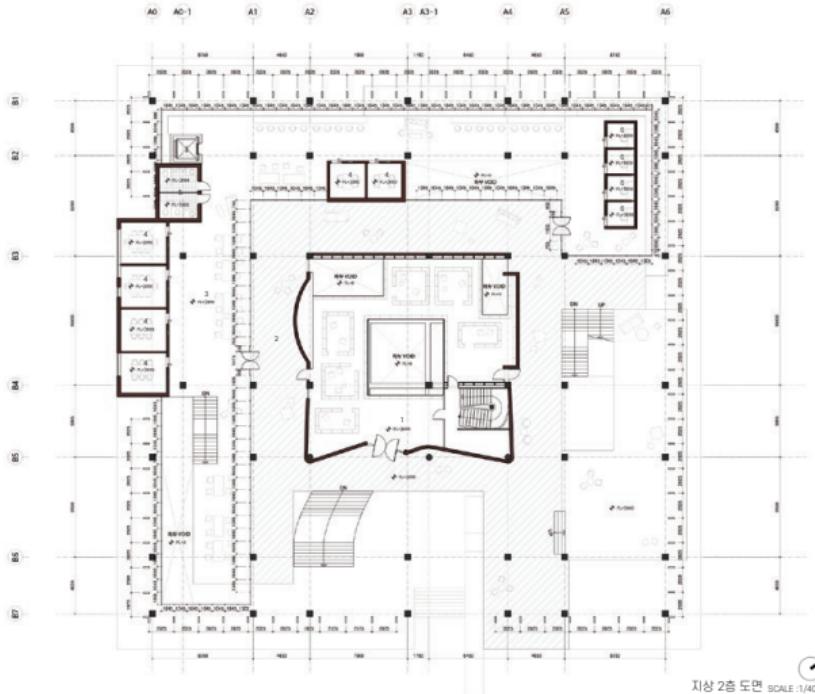


회랑으로 둘러싸인 벽, 곡선의 차마와 투출된 보, 자유롭게 구성된 패턴까지 전통 건축의 요소들과 근대에 유입된 서구의 문물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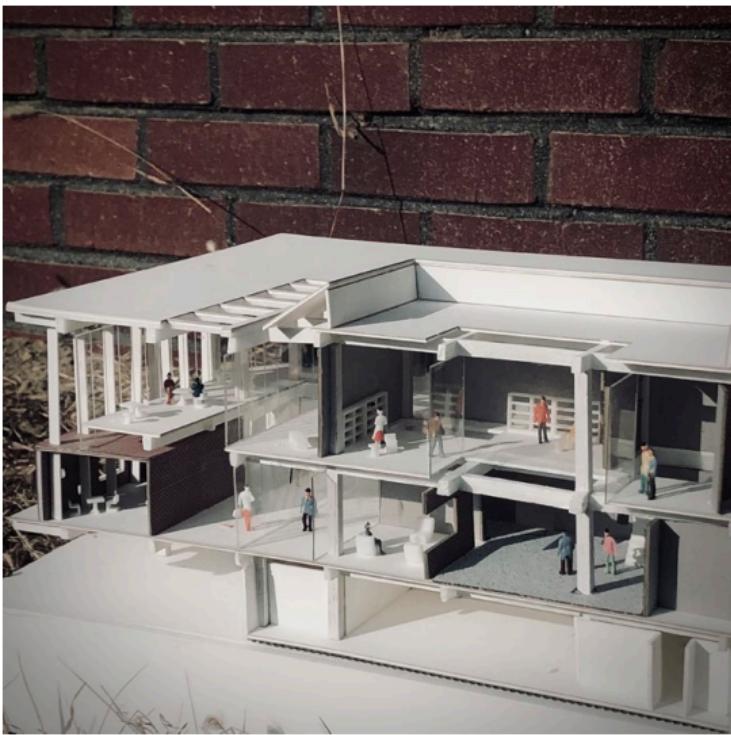
지상 1층 도면 SCALE :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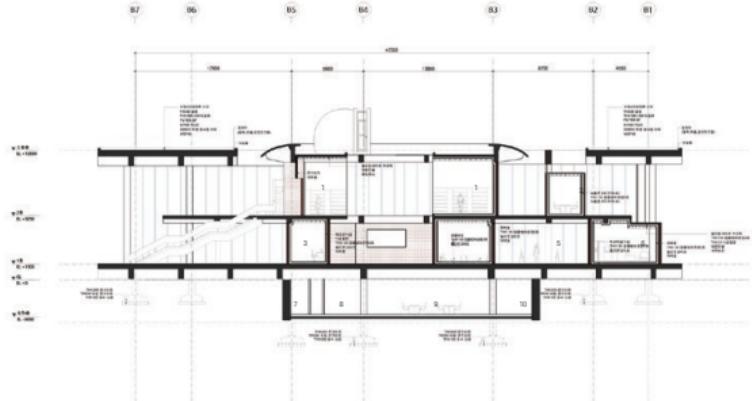
- | | |
|-----------|-------------|
| 1. 티스토머 | 6. 화장실 |
| 2. 명상실 | 7. 브카페 |
| 3. 디도상 | 8. 문화교실 |
| 4. 대기 전시실 | 9. 어린이 열린술 |
| 5. 품마리상 | 10. 아역이 놀이터 |



지상 2층 도면 SCALE :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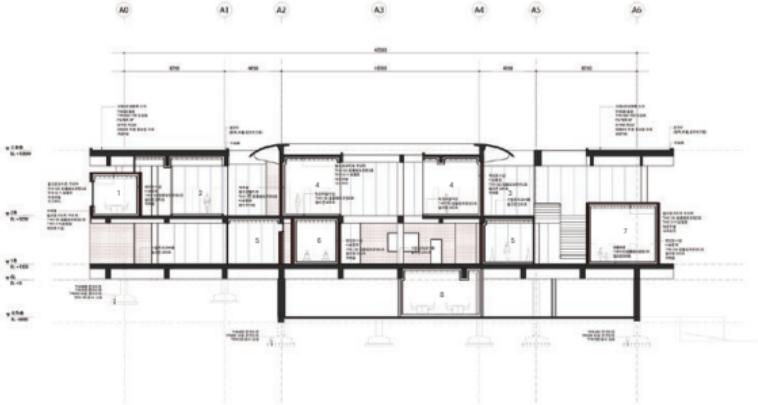
1. 쇠가 4. 그
2. 모의 5. 향 6. 향
3. 모의 7. 향 8.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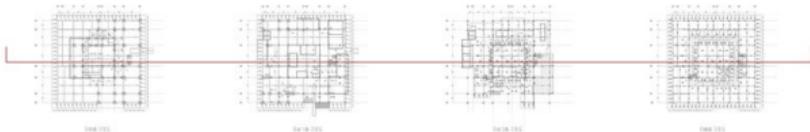
총단면도 SCALE: 1/400

기존 건물의 형태를 담아내며 형성된 공간들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로는 외부가, 혹은 내부가 될 수 있는 공간들 속에서 사람들은 건물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횡단면도 SCALE: 1/400

- | | |
|-----------|------------|
| 1. 그린도문실 | 5. 전시실 |
| 2. 열람실 | 6. 명상실 |
| 3. 아동 열람실 | 7. 아동이 열람실 |
| 4. 서가 | 8. 다목적실 |



URBAN VOID

4th GRADE 1st SEMESTER
COLLABORATION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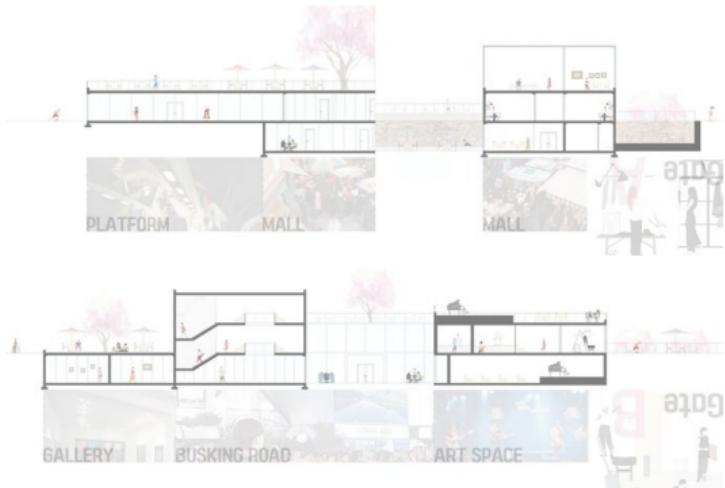
남대문 시장의 하루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이르게 시작된다. 선더미같이 빨인 옷과 원단들을 나르는 오토바이들, 차도 넘어 회현동에서 들러오는 마シン 소리, 분주한 상인들. 그들이 한 숨 돌리고 나면 그제서야 지하철은 정장을 갖춰입은 회사원들을 토해낸다. 각자의 출구를 향해 걷는 분주한 발걸음들,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목적지. 일곱 개의 출구에는 일곱 가지의 색이 존재한다.

한때 서울역 7017 프로젝트로 떠들썩했던 시기가 있었다. 고가도로의 끝, 또는 시작에 위치했던 남대문 시장은 이로인한 재부흥을 바랐지만 예상보다 부족했던 호응으로 인해 기대효과를 바라기는 어려웠다. 남대문 시장이 침체되면서 회현동에 위치한 복제공장들이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일거리가 많은 동대문으로 향한 사람들은 사이로 여전히 회현동에 자리하고 있는 이를 막부에 회현동의 골목길에는 아직 오토바이 소리가 남아있다. 자상의 사람들만을 지하 역시 분주하다. 각자의 감성을 지닌 지하상가부터 출퇴근을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남대문 시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저마다의 이유로 사람들은 회현역을 찾는다.

남대문 시장과 회현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로 대신 그들은 언급시키려는 듯 자리한 회현역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일 아래에 위치한 플랫폼을 제외하고 반으로 둑, 칠려있는 지하철역은 연결보다는 단절에 가깝다 말할 수 있다. 각각의 색을 뿐만 아니라 생생한 출구들은 깊은 색을 띠지도, 섞이지도 못하고 도로변에 놓여져 있었을 뿐이었다.

현재 회현역은 포함한 우리나라의 지하철역들은 출구가 도로에 면하여 보도의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사람들이 길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지만 그저 스쳐가는 공간일 뿐이다. 넓은 지하공간은 그저 플랫폼으로만 이용되고 있음을 떠나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만의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의 중요한 공공공간으로서 도시와 역사 만나는 경계를 어울며 회현역 각 출구가 가지는 아이덴티티를 담을 수 있는 동시에 오늘날 지하철 플랫폼들이 가지는 루에 같은 가치를 뱋아내기 위한 새로운 도시 광장으로서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들이 그곳에 자리한 이유를 명확하게 그려내고, 서로를 연결해야 한다. 그저 스쳐지나가는 도시의 오브제가 아닌,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 깊숙히 자리한 도시의 풍경이 될 수 있도록.







남대문 시장의 친목로에 위치한 GATE A, 기존의 상업시설을 유지하면서 보존하였던 URBAN VOID를 확장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동선에 자연스레 녹아있는 뉴포인트를 통하여 남대문 시장의 활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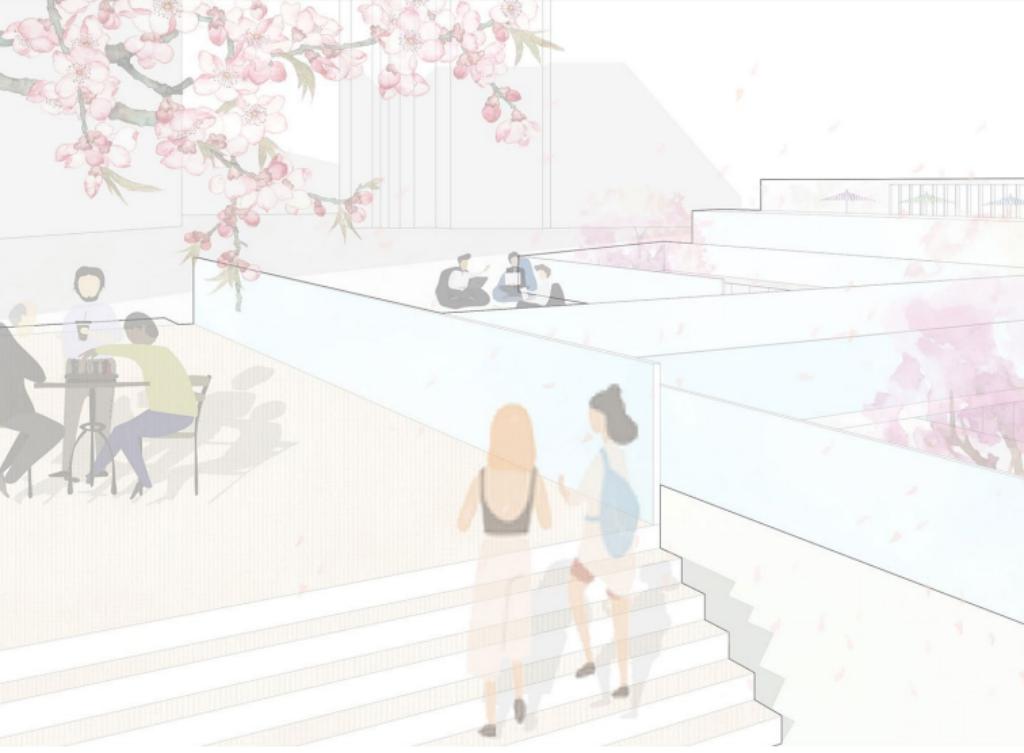


주거 지역인 화현 1가의 진입로에 위치한 GATE B. 화현 1가의 글목을 축으로 공간이 분점되어 지역에 가지는 도시공간을 담는다.

지역 주민들과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시와 공연 등의 대체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아트 플랫폼으로서의 URBAN VOID를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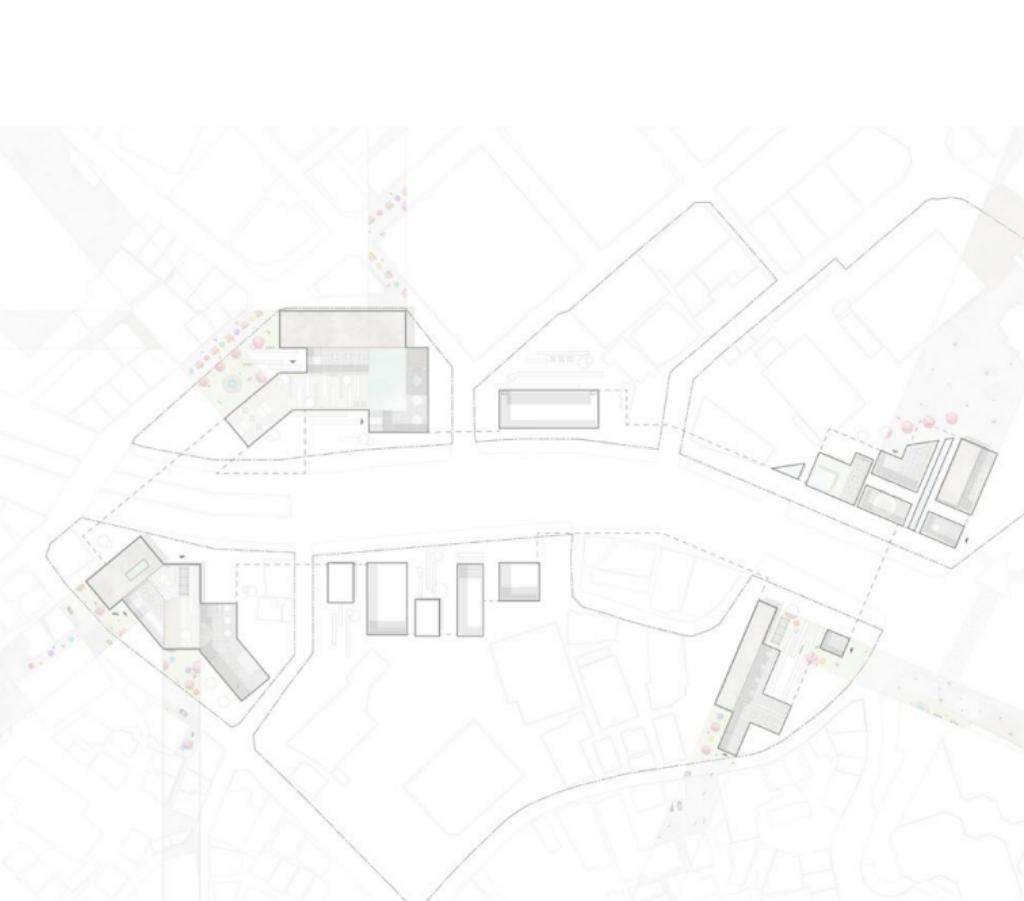
종심임무지역에 위치한 GATE C. 업무로 인하여 분주한 회사원들 외에도 관광을 목적으로 길을 누비는 사람들은 또한 적지 않은 수다. 다른 게이트들보다 상대적으로 일도가 높은 URBAN SCAPE를 보이고 있어 포화상태인 지상을 배제하고, 반대로 지하를 통한 도심 속 VOID PARK라는 새로운 형태의 품앗음을 구축한다. 이는 지하철 이용객을 외에도 회사원, 관광객 등 소거가는 이들이 대모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한다.



명동과 화현 1가로 나뉘어 걸어 뛰어가는 교차점에 위치한 GATE D.

길목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 도심 속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길목이라는 URBAN VOID로서 자리한다.

두 개의 길목을 따라 뛰어가는 플랫폼에서 교차하는 수목들과 예술 전시, 문화 공연 등을 통하여 바쁜 도심 생활 속 작은 여유를 선물한다.



일상을 벗어나 대번리 해안 길을 따라 자연으로 떠납니다. '단란'을 지키고 있는 울창한 봉대산과 해안의 암석, 운슬이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단란'을 존재해왔던 것들은 우리에게 꾸밈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잠시 머물기 위해선 꾸밈이 없어야 합니다. 자연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이 모습을 떠옵니다. 이곳의 분위기, 이곳의 형태까지도. 잠시 멈춰 봉대산과 바다 사이에 둘러싸여 봅니다. 잡힐 것 같지만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는 바람. 언제 들어도 청량한 파도. 곧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짐을 암시해주는 판 내. 해안에서 수백 년 동안 머물러온 바위와 암초처럼 우리도 잠시나마 이곳을 느껴봅니다. 세월로 인한 흔적을 찾아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접근하며 무엇보다 자연과 대지를 존중합니다.

이 공간은 자연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자연의 형태와 사람의 형상을 담아냅니다.

우리는 결국 '단란'의 일부가 되어 이 공간을 그대로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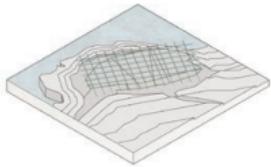
우리는 자연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흐름을 부여한다. 주변의 모습을 받아들이고자 자연의 구성을 참고한다. 기존의 획일화된 건축물의 모습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매스를 다채롭게 중첩하여 표현한다. '단란'에는 자연을 온전히 담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바다와 산의 사이에 위치한 '단란'은 그 둘을 함께 담아내고 동시에 연결한다. 건물은 주변 환경에 비롯되어 형성된다. 다양한 불规则의 암초와 파도의 너울거리는 모습을 모티브로 건물이 자연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의 요소 하나하나가 얹히며 하나가 되듯, 공간을 중첩시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자연의 모습은 흔적을 남기지만 본질은 유지된다. 바람과 파도로 인해 마모된 암석들. 이들은 단단하지만 자연에 순응하며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단란'에 담아 자연에 대응하는 방식을 고찰하며,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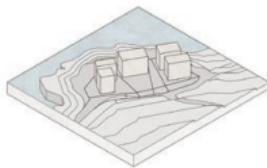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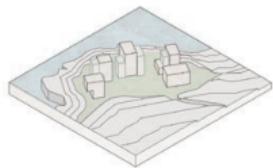
세 면이 모두 바다로 감싸져 있어 모든 시선 속에 바다가 담긴다.
건축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써 역할하여 천혜를 아우르는 조화를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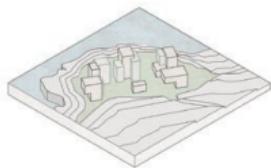
그리드와 측



가용 가능한 범위



분류



종합



브릿지 형성



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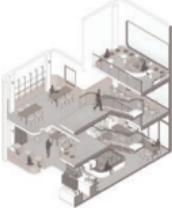




로스팅



베이커리



커피



케이크하우스

작은 공간들 사이로 자연을 연결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조화를 형성한다.
각각의 성격을 지닌 마스들 사이로 스마드는 자연. 이는 방문자에게 새로운 자연의 흐름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자 한 번 아름다 가는 곳에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고 싶은 키움
시간에 흐름에 따라 자연이 변화하면, 이를 담아내는 공간 역시 변할 것임을 믿는다.



杏花 RENAISSANCE

2019 차세대문화공간 광모전
COLLABORATION WORK

서울시에는 ‘달동네’라고 불리는 서민들의 삶이 담겨있는 지역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현대의 도시구조는 달동네에 적응되어있는 시간을 부정하듯이 그 위에 고층건물로 또 다른 언덕을 만들고 있다. 두 언덕이 존재하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언덕들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복적이는 시장, 익숙한 골목냄새, 향기로운 이름 감끌길, 설레는 맘으로 맘보슈파에 가자, 너그란 어르신들의 모습만 큼 푸근했던 동네, 참 미안했던 주인집의 수협생, 그 때도 손님이 없던 행화당에 가면 우린 수영을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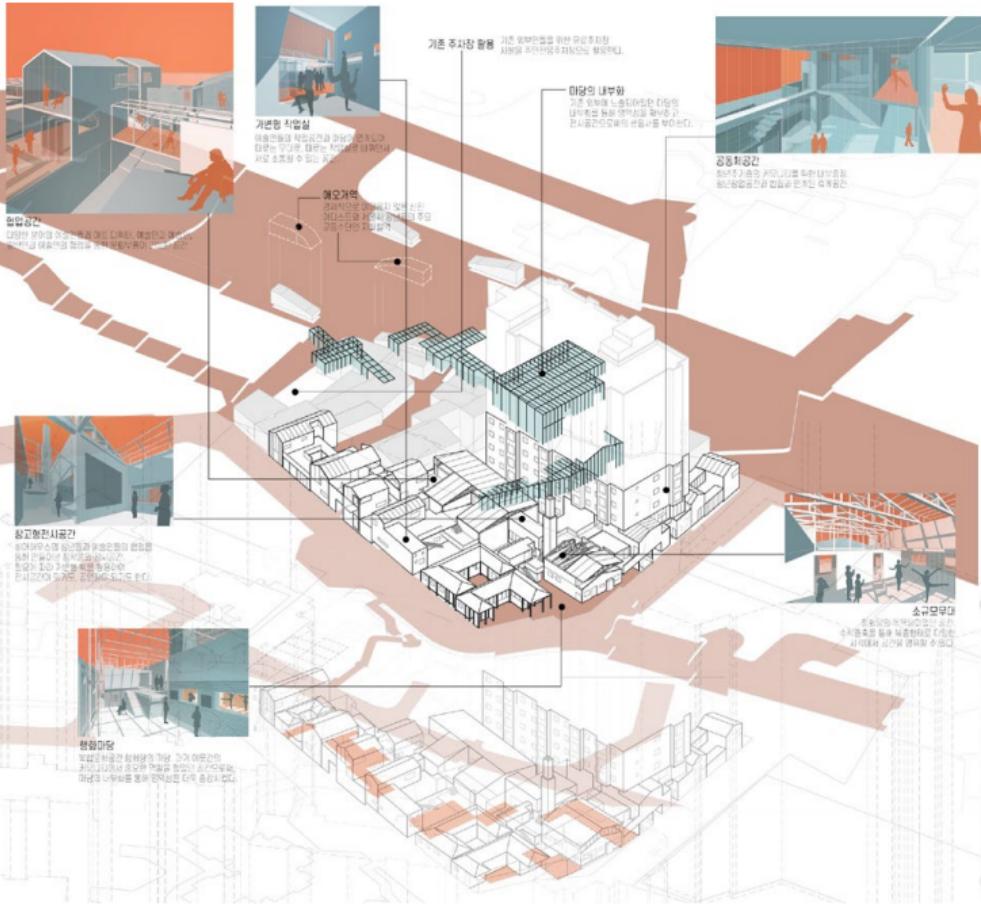
인디가수들이 노래했던 아현동의 모습은 어렴풋이 흔적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로 인하여 우리는 노래를 듣으며 아현동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사람들이 지키고자 노력한 언덕; 그 안에 담긴 것은 물들다 간 주민들의 기억이었다. 남아있는 기억들은 낡고 마모되어 예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채로 존재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기억이 여전히 빛을 내고 있음을 눈치챌 것이다.

이주민들의 삶이 축적되어 형성된 아현동은 그들만의 공감대로 공동체를 형성해갔다. 작은 골목길 사이의 구멍가게들, 주말이면 부모님 손을 잡고 함께 가던 행화당. 동네 사람들의 소식들이 웅기종기 모여들던 골목길들이 사라지고, 행화당도 문을 닫게 되었지만, 누군가로 인해 방식은 달라졌을지언정 다시 예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여전히 남겨진 과거의 흔적들, 그 흔적들을 되새기고, 재구성한다. 각각의 흔적들은 서로 연계되어 영역성이 흐려지고, 하나의 광공으로 존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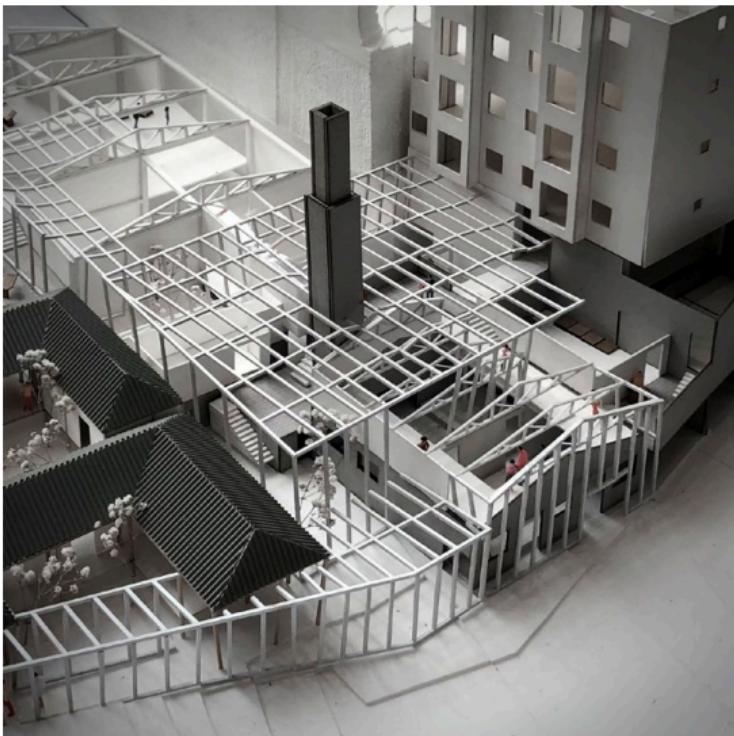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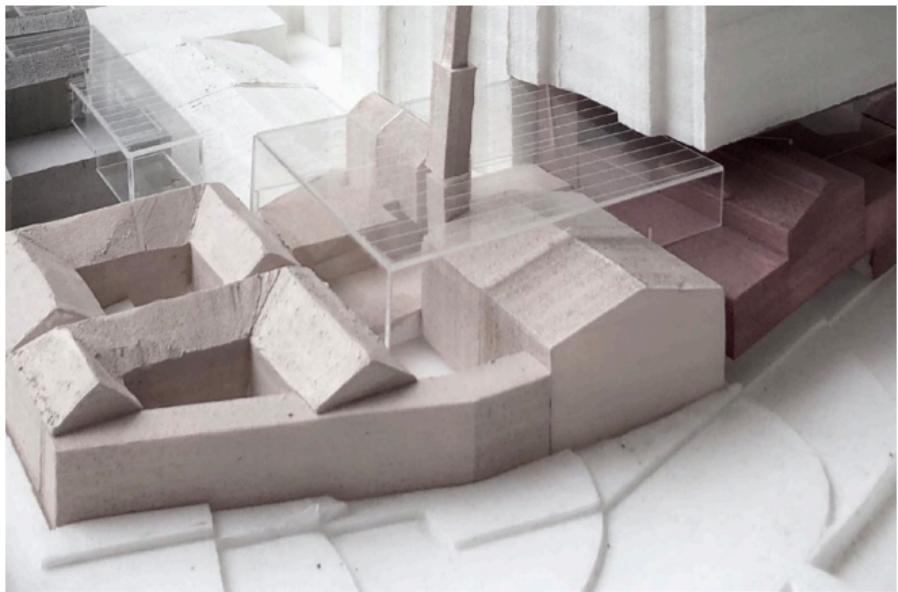


2016년, 목한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행화당은 결국 2021년 5월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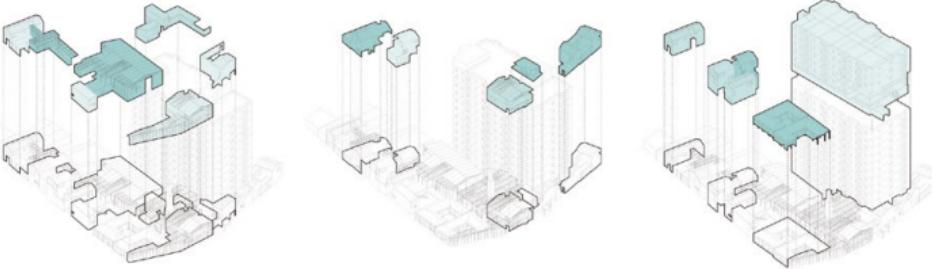


강조한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성장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그 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공동체를 강조한다. 공동체는 공동으로 협력해 공동체를 조성하는 과정이다.



3





문화커뮤니티공간

기존 건물들이 흩어져 있고, 인연 '답'의 공간화를 통하여 내부로 점 어울려는 문화공간 자체가 사람들을 위한 휴게공간,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문화공간 자체가 사람들을 위한 휴게공간,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문화공간 자체가 사람들을 위한 휴게공간,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문화공간 자체가 사람들을 위한 휴게공간,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공간 활용하여, 미 아트스트와 커뮤니티 공간이 연인 혹은 친구들이 사용자를 위한 절로 변화함에 따라 보행자를 위한 동선을 내부로 물어들인다.

복합문화공간 복합화장을 중심으로, 내부를 통해 아트스트와 청년이 만나는 대화공간에서 문화적인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다. 또한 건물 사이의 마당을 통해 다양한 예술 행위를 유도한다.

구영가게 / 협업공간

기존의 주거공간에서 상업공간으로 변모한 공간들의 구조, 공간형식을 그대로, 옛 풍광정성에서 보여지는 구영가게 형식의 작은 상업공간으로 단기간 매무르는 청년과 아트스트를 위한 공간이다.

신진 아트스트와 아트 디렉터, 세아하우스에 주거하는 청년들과의 다양한 문아방 활동을 통한 문화적 소비와 재생산 공간으로, 작은 규모의 공간들이 곳곳에 표시된다.

복합문화공간 복합화장을 중심으로, 문화적으로 문화적 소비와 재생산, 그리고 하숙과 복식으로 성장하는 청년들을 위한 작은 구영가게 형간으로, 즉, 주의 기발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년주거 / 게스트하우스 / 아티스트 레지던시

아파트의 부분적인 리모델링으로, 구조를 이용하여 내부에 중정을 두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방을 이용한 세 아파트로 넓어짐 시킨다. 상당수로 임대료가 낸 마련동 지역에서 청년들이 아우를 수 있게 한다.

기존 디자인 주택의 표준 그램 자체로, 다가구주택에서 아트스트로이너리를 변화하고 내부에 작업실과 전시실이 있어, 각 텐마를 가진 디자인의 아트스트가 단기간 아울면서 생활하게 된다.

기존 한옥을 내부 표준그램의 지원으로 개스트하우스로 활용 하거나 마감과 마루로 통용하고, 게스트하우스의 사용률은 외화에 활용되는 특성한 특성을 가지고 단기간 매무르는 커뮤니티를 형성된다.





아현동의 지역성에서 '담'이라는 요소는 개인적인 영역성을 낸다네, 커뮤니티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주변 재개발 이후, 옛 아현동 사람들이 젊음을 오갔던 골목은 사라지고 차동차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담의 공간성을 놓고 시간진 골목에서를 나부로 끌어들인다.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행화당에서의 커뮤니티를 통해 사라진 아현동의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도록.

2022-

JANG HEE JO

37°30'34.4"N 127°02'05.3"E
37°30'42.8"N 127°02'16.4"E
36°58'11.8"N 127°52'16.4"E
37°33'32.8"N 126°54'41.6"E

